



6월15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 종 철	팀장	김 경	☎	286-6440
----	--------	----	-------	----	-----	---	----------

전남도, “22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 전국 최다 선정 - 공모사업 신청 7개소 모두 선정, 국비 100억원 확보 -

전남도는 2022년 농식품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한 7개소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나주시 통합RPC, 고흥 풍양농협, 해남 땅끝농협 등이 참여하여 서류심사, 현장평가, 공개 발표평가 등 3단계 엄정한 절차와 치열한 경합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전체 사업비는 240억원으로 재원별 부담률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개소당 사업규모는 나주 통합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159억원이며, 벼 건조저장시설은 20억원으로 산물벼 저장에 필요한 사일로, 건조기, 냉각장치 등을 설치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모사업비 기준 전국 36%를 확보하여 전남 쌀 생산·유통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대표 브랜드 육성에 탄력이 붙고 품질 고급화와 수확기 벼 확대 매입이 가능해 재배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대상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서류 및 현장 평가 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상자 선정 방침을 바탕으로 개별 업체에 적합한 컨설팅을 실시한 것이 주효해 유례가 없는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내년 수확기 이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연내 인허가, 실시설계 등 단계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전남 쌀 유통 활성화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으로 매년 4~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담양·고흥·장흥·해남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